

常州 화학사업 투자유치 설명회 성황

국내 화학기업 관계자 50여명 참석 ... 정밀화학단지 조성 맞춤형 설명

중국 江蘇省(Jiangsu) 소재 常州(Changzhou)시와 Changzhou Chem-light State-owned Assets Operating이 한국 화학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상주경제특구의 정밀화학 투자유치 설명회가 12월2일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중국 CNCIC(China National Chemical Information Center)와 화학경제연구원(CMRI)이 후원한 상주 정밀화학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20여명의 중국 정밀화학 관련 기업인들과 상주시 정부 관계자들이 설명회를 위해 입국했다.



COEX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설명회

한국 화학기업으로는 한화, 동양제철화학, 신호유화, 한국화인케미칼, SKC 등 40여개의 정밀화학 및 석유화학 관련 기업이 참석해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었다.

상주시 Xu Jianming 시장의 인사말로 시작해 상주시와 상주 정밀화학 특구 소개, 그리고 상주시 투자여건 및 기존 경험담 발표 순으로 설명회가 진행됐으며 이어 농약, 의약, 정밀화학, 중간체, 생명공학 5개 정밀화학 부문의 개별적 맞춤형 자리가 마련돼 한국 투자자에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를 제공했다.

상주시 경제특구는 기계야금 20%, 전자 9%, 섬유 및 직물 13%, 식품 5%, 가구 4%, 플라스틱 9%, 화학공업 15%, 의약 8%, 의류 6%, 자동차 11%로 구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정밀화학 등 화학사업 부문 투자 유치를 강화하고 있다. <심혜련 기자>

<Chemical Journal 2003/12/03>